

여성문학을 통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김 영 희**

1. 머리말
2. 강좌 목적과 교재물 선정 준비과정
3. 학습 오리엔테이션과 기초작업
4. 강좌 형식과 접근 방법
5. 한국 현대소설의 페미니즘적 독해
6. 강좌의 총체적 의미와 성과
7.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세계화’라는 어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민 사이에 매혹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것은 거의 일상생활 용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거나 파악되기도 전에, 이 문구는 한국인의 상상력에 불을 붙여, 그 이름아래 수없는 사업들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마법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세계화’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구호가 될 필요도, 한국의 정신적 유산의 감상적 이상화가 될 필요도 없다. 또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총동원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초인간적인 영웅들을

* 이 논문은 1999년 8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펜클럽 한국 본부 주최 제5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것을 『여성문학연구』의 기획에 맞게 축약한 것이다.

** 하와이 주립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조금 덜 야심적이고, 오히려 더 실제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차원 위에서 우리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인의 인간적 경험과 문화적 산물들을 세계시민들의 손에 좀 더 가까이 닿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국제적 대화와 상호교환을 이룩해 나가는 활동 속에서 개인적 만족감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로서 하와이 대학 내 한국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행해지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이라는 강좌의 진행 과정을 통해 여성문학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한 실마리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2. 강좌 목적과 교재를 선정 준비과정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이라는 강좌는 현대한국대표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한국여성의 현실이 어떻게 투영되어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여성학적 견지에서 규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교과내용과 접근방법의 명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습 방향, 강좌에서의 기대 사항, 그리고 그들의 과제수행의 목적과 방법을 확실히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강좌의 논제와 방법적 상술은 이러한 과목들이 자칫 가지기 쉬운 약점들—즉 한국 작품들이 영문판으로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모아서 가르친다는—을 피할 수 있다. 부차적으로, 이 강좌는 하와이 대학 내의 한국학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선택의 가능성을 증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한데, 그것은 내가 하와이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한국 여성과 문학’이라는 표제의 강좌가 이곳에서 강의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에 가르치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얻은 동아시아 여성작가들에 관한 성공적인 대학원 강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나는 이러한 강의의 필요와 가치를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 내가 아는 한 이와 비

스한 강좌가 있는 미국대학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아마 시카고 대학과 하와이 대학 정도에 그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과목의 강의를 위한 전체적 준비과정은 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첫째로 맞는 난관은 교재선정이다. 이 문제는 겉보기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우선 한국현대소설의 영문번역물은 숫자적으로 너무 제한되어 있다. 물론 1980년대 후반, 내가 동아시아 여성과 문학에 관한 과목을 처음 개설할 당시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 할 지라도,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영문 번역물 중에서 이 과목의 논제적 틀에 맞는 작품을 찾는 일은 더 어려운 작업이 된다. 모든 번역물이 여성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작품을 숫자상으로 균형을 잡으려 할 때, 선정의 작업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러 잡지들과 단행본 등에 흩어져 있는 번역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과목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검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준비단계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차적 과제물의 선정이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근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조감시켜 줄 수 있는 자료들의 발굴 작업이다. 이것 역시 이 방면의 영문자료들의 태부족으로, 번역물을 찾을 때와 비슷한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¹⁾ 두 번째로 수집해야 하는 과제물은 작품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여성학 이론에 관한 기본적 자료들이다. 다행히 이 부분에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작업에 비해 느끼는 어려움과 좌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득된 자료들은 일단 복사, 정돈되어 복사전문업소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구입할 필수 교재물로 포장된다. 결국 이 과목 교재 일체는 교수 스스로 제작해야 한다는 복잡성과 시간적 소

1) 가장 도움이 되는 영문 논문은 마르티나 도이츨러(Martina Deuchler), "The Tradition: Women during the Yi Dynasty," in *Virtues in Conflict*, ed. Sandra Mattielli (Seoul: Royal Asiatic Society, Seoul Branch, 1977), 1-47.

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강좌의 과제물로서 소설들을 선정한 경우, 장편보다는 단편을 보통 택하게 되는데, 이유는 단순히 좋은 영문번역본 장편이 일반적으로 희귀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잘 선정된 여러 개의 단편은 두어 개의 장편보다 작가와 작품의 다양성을 강의 자체에 부여할 수 있고, 또 한편 한국현대문학전통 내에서 단편이 차지하는 높은 평가와 풍요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한 학기는 16주에서 17주 가량 계속 되는데, 학기의 길이에 따라, 한 학기에 대개 12 또는 13개의 단편이 읽히게 된다. 이 단편들은 192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발간된 것으로, 연대순으로 읽힌다. 학기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계속 읽히는 핵심 단편들도 있으나, 학생들의 반응을 참조하거나 혹은 최근 새로 등단한 한국작가 또는 그들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읽히는 작품의 선정을 종종 바꾼다. 학생들의 인기작품들을 열거하면, 주요섭(1902~1972)의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 한말숙(1931~)의 「홍수」(1959), 박완서(1931~)의 「해산 바가지」(1985), 최윤(1953~)의 「하나코는 없다」(1994), 그리고 김형경(1960~)의 「담배 피우는 여자」(1996) 등이다.

이 강좌는 하와이 대학의 인문계 필수 교양과목 중의 하나로 여러 전공 분야의 학부 학생들이 청강한다. 예를 들면, 공대생으로부터, 정치학, 법학지원생, 심리학, 예술 분야 그리고 한국학 전공생들까지 포함된다. 20명을 정원으로 하는 이 과목은 신입생에서 졸업반에 이르기까지 남녀 학생이 등록하는데, 그 비율은 보통 여학생 쪽이 많은 편이다. 이 반의 가장 큰 특징은 수강 학생들의 인종적 모자이크로, 하와이의 인종적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학생들의 인종적 계통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도 포함되며 꽤 여러 학생들이 국제 결혼부모의 자녀이기도 하다. 이 인종적 다양성에서 오는 이질성은 학생들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이게 하며, 활발한 토론과 생각의 교환을 쉽게 해주는 실용성이 있고, 열린 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점이 이 과

목을 가르치는 즐거움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3. 학습 오리엔테이션과 기초작업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문학과 한국여성은 제쳐놓고, 한국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학기강의는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 두 주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경자료들을 읽어 강의 전체에 대한 개관을 갖게 하고 기초를 쌓는 것에 쓰인다. 우선 한국현대사를 훑어보는데, 특히 여정표적(旅程標的)인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 해방 후의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시기,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문민정부수립 등을 살핀다.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한국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 고대의 보물, 현대의 경이”(“Korea : Ancient Treasure, Modern Wonder,” 1990), “한국 : 맥아더의 전쟁”(“Korea : MacArthur’s War,” 1988) 등 영어 설명이 달린 비디오를 보여준다. 시청각자료에 비취진 한국문화전통의 미와 업적에 학생들은 많은 감명을 받게 되나 무엇보다도 최첨단 기술, 경제적 풍요, 활기에 찬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그들을 완전히 매료시킨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적 여성의 생활을 규제해 온 유교적 가부장제도에 관한 검토이다. ‘삼강오륜’, ‘삼종지도’, ‘칠거지악’, ‘부창부수’ 등이 그 중심이 된다. 이 개념들은 가르칠 때는 치밀한 계획과 학습지도가 필요한데 이유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한국여성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서구 문화권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곧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사항들이 중매결혼, 고부간의 갈등, 축첩, 서출자녀의 차별대우, 과부재가 금지, 그리고 전통적 대가족 제도 내에서 한국여성에게 강요되어온 침묵과 순응 등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전통적 성차별의 관행은 미국학생들

과 한국간의 문화적 간격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한국여성들의 정치계, 실업계, 대학, 신문잡지, 예술방면에서 이루고 있는 눈부신 활약이 학생들에게 소개될 때, 그들은 오늘의 한국여성들이 사회적 신분, 삶에 있어서의 선택권, 그리고 활동 범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진전을 보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 엄청난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때 그들은 한국의 근대화 운동과 교육 강조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이러한 사회운동이 여성들의 자각과 여성 스스로 감행한 인간적 기본 권리와 권위회복 투쟁에 끼친 절대적 영향과 업적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1970년대로부터 한국대학에서 시작된 여성학 분야와 그 후에 나타난 여성운동이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진출을 위한 극적인 발전에 기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배우게 된다.

마지막 준비단계로서 학생들은 기초적 분석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목적은 학생들이 앞으로 읽을 작품들을 다룰 수 있는 발판과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여성학의 발생경위, 목적, 발달과정, 그리고 여성학이 남녀 양성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받는다. 동시에 젠더(gender : 성별차)와 성(性)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짓게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보게 된다. 이러한 독자적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배운다.

1. 불란서 여성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주창했듯이, 여성은 “하늘의 반을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²⁾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임무와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2)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Women's Time”, in *The Kristeva Reader*, ed., Toril Mo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202 참조.

2. 미국 내에서의 여성학 분야는 여성의 동등권과 미국사회와 역사에 있어서의 여성의 존재를 주창, 표명하며 일어난 1960년대 말의 인권운동에 연루된 학계의 반응이다.

3. 페미니즘이란 보통 잘못 알려져 있듯이, 여성의 남성 혐오적 단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페미니즘은 오히려 여성과 양성관계, 그리고 사회 체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페미니즘은 현 체제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녀노소 인류전체를 위한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4.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은 그렇게 엄밀하게 그을 수가 없다. 그 까닭은 성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이러한 양성적 특징을 다 조금씩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구별에 대한 강직된 신화적 개념은 해체되어야 한다.

5. 젠더(성별차)는 사회 문화적 조립품인 반면 성이란 생물학적인 선천적 조건이다.³⁾

6. 간단히 말해서 페미니즘은 성이란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양성 간의 차별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구속적이고 편파적이며 해로운 성 편견을 없애자는 것이다.

7. 페미니즘에 입각한 문학연구는 "남성 지배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미적 경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산출되는 이미지와 논제,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를 탐구하는 것이다."⁴⁾

3)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시몬느 드 보봐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기억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아니라 여자로 길러지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거나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무 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여자도 다른 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에 의하여 공들여 만들어지는 조립품이다."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tr., H. M. Parshley(New York: Vintage Books Edition, 1989), p.267, 725 참조.

4) 조세핀 도노반(Josephine Donovan), "Toward a Women's Poetics," in Shari Benstock, ed., *Feminist Issues in Literary Scholarship*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98 참조.

8. 한국문학과 여성에 관한 연구는 제3세계 여성과 그들의 문학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여성학 내에서 최근에 일어난 도전의 한 결과이다.⁵⁾ 여성학부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획기적인 진전은 서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던 여성학 분야의 상례적인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그 연구범위를 넓혀 동아시아 여러 국가를 위시한 소위 '제3세계'의 문학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대학 교육과정에도 넣는 상황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한국여성과 문학'이라는 과목은 대학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적, 다인종적 형평을 기도하는 학자 간의 노력에 참여하는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강좌의 전체적 개관을 갖게 하고 그들의 시각을 조정하는 이 학습 방식은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본다. 첫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성학과 비평에 대한 불안과 몰이해를 해소시키고, 학생 자신이 클래스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이제 학생들은 자기들의 비평과업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도구를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되었으므로, 개개의 작품을 읽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에 대하여 한층 자신을 갖게 된다. 셋째, 그들은 여성학과 인문과학이라는 넓은 분야 내에서 한국문학과 여성의 연구라는 이 강좌가 어디에 자리잡고 있으며 왜 이러한 과목이 미국 내의 대학에서 강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남녀양성체제 및 가정과 사회에 관한 새로운 발견과 통찰, 도전과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학과 한국문학 연구분야 내에서 차지하는 바 이 강좌의 학문적 정당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5) 팸 모리스(Pam Morris), *Literature and Feminism* (Oxford and Cambridge: Blackswell, 1993), p.177. 이러한 주장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에 의해 추진되었다. 메리 이글톤(Mary Eagleton) 편, *Feminist Literary Theory: A Reader*(Oxford: Basil Blackwell, 1986), p.5 참조.

4. 강좌 형식과 접근 방법

그러면 정작 이 과목의 강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소개하기로 한다. 하나 하나의 소설을 읽는 단계에서 나는 전통적인 학습방식에서의 급진적 탈피라고 볼 수 있는 양식을 택했다. 즉 교수방법에 있어서 나는 강의 대신 학생들의 주도와 적극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강의 교안에는 앞으로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작품들 속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잘 살펴피도록 지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 성차에 따르는 행동 내용과 반경, 그리고 남녀 사회적 역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 남, 여성의 관계의 역학적; 남녀간의 사랑의 제 형태들; 결혼 목적의 다양성; 성혼의 제반 양상; 부부관계와 인척 관계의 제 모형; 가족제도와 그 구성의 특성; 여성의 자유, 선택의 가능성 및 주체성에 관한 문제 등에 착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각 소설의 이야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을 독립적이며 독창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한 페이지(두 줄 띄어쓰기로 타이프 된 한 페이지)에 걸쳐 써오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글들은 반에서 발표되며 직후에 따르는 자기들의 그룹 토론의 기초와 제재로 쓰이게 된다.

일단 클래스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가 준비해 온 글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스스로 토론을 진행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일주일에 단편 하나 정도를 끝낸다. 해당 소설을 읽는 마지막 클래스에서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소그룹에서 토론해 온 문제들을 내어놓고 반 전체가 상호교환을 하게 된다. 이어서 나는 학생들의 관찰점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해두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 해명, 정리한 후, 끝으로 해당 소설의 전체적인 단평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페이지를 제출하며, 거기에 첨가되는 나의 짧은 평이나 제안을 참조하여 각각 수정을 가하게 된다. 그들이 수정한 페이지는 학기말에 다시 나에게 제출되어 그것으로 각자 최종 학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감지한 바와 같이, 지금껏 해온 나의 시도는 클라스의 초점을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로 바꾸는 것으로서 이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습방침에 따른 것이다. 요즈음 교실은 교사, 학습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휴와 대화적 토론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⁶⁾ 이것은 교사가 전달해주는 포장된 지식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삼켜버리는 종래의 교육적 규범이나 장치를 의문시하며,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면 더 나아가 학습상 폐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최근 교실 내에서의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교사의 권위적 지위는 저변화 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교수법상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독자반응의 문학이론에 아주 가까이 연계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독자와 텍스트, 작가, 역사, 그리고 문화의 활력있는 역학적 관계가 아주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러한 새로운 교습적 패러다임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 상황 아래에서 학생들은 의미의 창출자로서 또 상호 교환적 학습의 중요한 수행자로서의 그 역할이 극대화되는 반면, 교사는 오히려 조정자나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이다. 나는 이 교수법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그 효율성을 다분 인정하고 있다.

6) 제임스 엠 카할란(James M. Cahalan)과 데이비드 비 다우닝(David B. Dowling) 편, *Practicing Theory in Introductory College Literature Courses* (Urbana, II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1) 속의 제 논문 참조.

7) 테리 이글튼(Terry Eaglet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예전에 문학비평은 그 초점을 작가로부터 작품으로 옮겼으나, 최근에는 독자에게로 이전했다."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 An Introduction*(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74.

5. 한국 현대소설의 페미니즘적 독해

다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좌 내용 그 자체이다. 교안에 올라있는 첫 작품은 김원주(1896~1971; 호, 일엽)의 「자각」(1926)이며, 마지막은 김형경의 「담배 피우는 여자」이다. 이제부터 몇 가지의 단편들을 추려 그 작품들에 나타난 문제들을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찾아내고 취급하는 중심논제들의 윤곽을 제시하려 한다.

「자각」은 열심히 살아가며 자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전통적 여성이 현대적 여성으로 변신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젊은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배신을 겪고 시어머니에게 혹사당한 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온다. 남편의 이혼제의를 받아들인 후, 스스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주인공은 독립적 새 생활을 시작한다. 자기의 어린 아들까지 포기하고 남편의 뒤늦은 화해의 청원마저 단호히 거절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작가가 강조하려는 여성능력의 함양과 자율성의 획득에 교육이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감득할 수 있고, 동시에 전통적으로 수동적이던 여성이 그 전형을 탈피하여 자기의 운명을 주관하는 독립적 여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제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한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여섯 살 난 딸을 가진 젊고 아름다우며 근대교육을 받은 과부와 그녀의 집에 하숙하는 생각 깊고 친절한 젊은 학교선생-그녀의 죽은 남편의 친구이기도 한-과의 서글픈 사랑이야기이다. 이 단편은 그 사랑손님에 대한 그녀의 깊어지는 연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향한 그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소설적 결말은 1930년대 중반인 그 당시에 과부재가에 대한 금기적 태도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가를 시사하고 있다. 이 단편의 영화(김진규, 최은희 출연)를 비디오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세 번째 작품은 최정희(1917~1990)의 「산제(山祭)」로, 이 단편은 열세

살밖에 되지 않은 신부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조혼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이 어린 소녀신부는 새 며느리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 설상가상으로 삼십 넘은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요구에 견디다 못하여 시집에 불을 지른다. 이 단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딸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하는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제시대 자기의 딸들을, 결혼을 통하여 팔지 않을 수 없었던 빈농들의 극심한 곤경을 폭로하고 있다.

좀 더 현재로 시기를 옮겨서, 우리가 읽은 단편은 손소희(1917~1987)의 「감이 익는 오후」이다. 이 작품은 삼십대의 불임 주부 이야기로서, 주인공은 자기 남편에 대한 배려에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식에서, 남편에게 한 여자를 제공한다.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얻은 남편은, 그 마음이 새 여자에게로 쏠리게 되고, 공공연히 그녀를 자기 부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예상과는 달리 심한 심리적 타격을 입은 부인은 회임을 위하여 불공을 드리며 혼자 머물고 있던 산사에, 남편과 그 일가가 찾아온 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속세와의 절연을 고하고 만다. 이 이야기는 결혼의 의미와 결혼관계 속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하여 근본적이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을 묻고 있다. 즉 여성의 가치는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지는 것인가? 또 결혼이란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충족되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말숙의 「홍수」는 신혼부부 한 쌍이 상대방을 위하여 살아남으려는 피나는 노력에서 합쳐짐으로, 치명적인 홍수의 위협을 극복하는 부부애의 원형적인 아름다움과 힘을 그려냈다. 이 극빈의 젊은 부부는 결혼 바로 다음날 들이닥친 홍수와 기아의 절박한 위기를 맞으나, 말로는 표현되지 않은 거의 본능적인 피차의 일체감 속에서 모든 난관을 초극하는 결과를 얻는다. 남편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강 위에 떠내려오는 물건들 속에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다 기진하여 가사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그의 얼어버린 몸을 자기 나체의 체온으로 덥혀 소생시킨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 결혼의 가장 미화된 본

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남남인 남편과 아내가 자칫하면 큰 불행으로 끝날 수 있는 재난을 하나의 기회와 희망으로 변환시키는 경우이다. 또 이 단편은 남녀간의 이상적 사랑이 어떻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양성문제를 다룬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는 수 세기에 걸쳐 관습화되어 버린 남아선호 사상의 부조리를 벗기고 있다. 작가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있어서 교육정도, 사회나 경제적 지위, 연령 또는 성차를 막론하고 이 편견이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가 특유의 비꼬는 듯한 유모어와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박완서는 부유층과 교육받은 계층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하며, 특히 그것이 소위 한국의 여성주의자리는 지도적 입장에 있는 여성들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황을 꼬집고 있다.

한편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는 현재 한국 남녀대학생 사회를 풍미하는 문화적 천박성과 위선을 노정시킨다. 작가는 퇴행적이며 무의미한 남녀대학생 한 그룹의 사교적 모임을 그림으로써, 여학생들이란 아무리 그들이 표면상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보이고 절친한 친구관계로 보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피상적 상징(토큰)일 뿐 친구 남학생들에 의하여 얼마나 비하되고 비인간화되는가를 예증하고 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 결말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작가가 이 그룹의 두 여자친구들의 개인적 능력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학창시절부터 계속되는 우정을 강조하는 데서 보여진다. 이 두 미혼의 젊은 친구들은—의자 디자인—이태리에 자리잡고 자기들의 예술적 재능을 살려 국제시장에서 인기 높은 상품을 개발해냄으로써 명성을 날린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그들의 옛 남자친구들은 변화없고 건조한 월급쟁이 생활에 의기소침해 있고, 대학 시절의 친구들과의 의례적이며 피상적인 회식이나 자기들의 완벽한 중상류 부르주아 가정생활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 결국 남녀대학생들 간의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남학생들의 간헐적 기분

전환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여대생이란 결론이다.

끝으로, 김형경의 「담배 피우는 여자」는 도회적 가정생활 내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폭력으로 젊은 주부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자존심을 잃고 주위에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소외감 속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다. 이때 담배 피우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이러니칼하게 자기 자신이 흡연가인 남편이 그녀에게 가하는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으로 잔인한 폭행의 구실이 된다. 고통, 두려움, 고독, 그리고 절망에 시달리던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마감한다.

6. 강좌의 총체적 의미와 성과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학기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한국여성들의 과거와 현재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하게 된다. 이 단편들 중 몇 편은 감미롭고 감상적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갈등을 포함하고 있고, 고통스러우며 심지어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예상대로 일부 학생들-특히 남학생의 경우-은 여성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와 딜레마에 자신들을 결부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들은 이 소설들에 반응하기를 주저하는데, 이유는 이 문제들이란 여성 고유의 것으로 자기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또 통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단지 문제를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성의 피해는 남성의 피해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개인적 전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여성들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남성 자신들의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이나 어머니와 함께 이 과목에서 배우는 교재를 나누어 읽고 상호 간에 그 인간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는 경험도

한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 주변의 여성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또 현재 무슨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이 여성적 경험이란 때로는 건디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이름을 붙여 정의하기도 어려운 깊이 숨겨진 것이기도 하다.-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반응은 한층 강도가 높은 거의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전통적 한국여성들의 곤경을 같은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이 단편들이 그리고 있는 여주인공들의 삶에 대하여 자기들이 느끼는 분노, 좌절, 비판의식을 좀더 공개적으로 나타낸다. 학기가 진전됨에 따라 여학생들은 종종 토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여주인공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역할의 귀감을 찾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토론시간들은 여학생들에게는 일종의 의식선양(意識宣揚)의 기회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또 지식의 향상이 동반된 개인적 성장까지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클라스는 늘 활기에 차있고 지루한 때가 거의 없다. 학생들의 자신의 생활이나 또는 자기 어머니, 할머니와 같이 주위에 가까운 여성들의 삶에서 그 비슷한 상황을 찾아내도록 서로 자극한다. 따라서 한국여성의 현실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자신들 개인사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깨닫게 된다. 사실상 학생들은 강의실에 말없이 앉아 내가 미리 깔끔히 정리하여 전하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자기들끼리의 의견교환을 훨씬 더 즐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택한 이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학생 각자가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룹토론을 통하여 피차가 가르치는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되는 일이 보람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적 사고 능력의 함양과 글쓰기 향상의 진가를 인정하게 된다.

이 과목을 가르치던 중 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경험이 1997년 5월 봄 학기말에 있었다. 우리 과의 한국어문학부장의 책임을 맡고 있던 나는 “한국어와 문화의 잔치”라는 제목 아래 과 내의 한국학부 학기말 행

사를 처음으로 추진했다.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일년에 걸친 노고와 업적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 사이에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강의를 택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 창의적인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날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필 낭송, 자신들이 한글로 제작한 비디오 보여주기, 시 낭송, 단막극, 음악, 그리고 한국 고전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 참가 인원수는 청중을 포함하여 약 130여명에 이르렀고, 공연 직후에 한국음식을 제공하여 축제를 마감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나의 반 학생들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택하여 1부, 2부의 드라마로 만들었다. 1부는 원본의 줄거리를 그대로 각색했다. 2부는 학생들 스스로가 현대판 이야기로 개작했는데, 여주인공인 엄마는 딸 하나를 가진 젊은 홀어머니로 동네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에 온 한 젊은 서양청년의 호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줄거리였다. 학생들은 이 각본을 쓰고 고치는 작업, 대화와 동작을 외우는 일, 예행 연습, 의상, 소도구, 음악, 무대장치 준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미소했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한 실제 공연은 청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준비과정 그 자체를 즐겼던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며 이 연극 공연은 자기들 대학생활 중에서 최고의 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한다.

7. 맺음말

요약하면,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이라는 강좌의 학습목적은 한국문학을 개인화하여 그 의미를 학생들의 사적생활에 연계시키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문학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경험을 갖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동적이며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 학습 과정을 지양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고 믿어진다. 궁극적으로 나의 학생들은 좀더 창의적이며 폭넓은 한국문학의 독자 되었고 무엇보다도 좀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좀더 자기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특히 한국문학작품을 여성의 문제라는 한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한국문화의 흐름과 여성학 이론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문학적 감성, 이해 그리고 사고능력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는 이상적 교수방법이라고 확신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